

오늘 전체 등교... 여전히 불안한 교육현장

중1·초 5~6학년 135만명 '코로나19' 속 99일만에 마무리 광주·전남 학생 확진자 없어... 교육청 "비상대응체계" 유지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이 8일 마지막으로 등교하지만 지역별 산발적 감염 확산과 격주·격일제 등 원격수업 병행에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8일 전국 중1, 초5~6년 등 135만여 명이 새 학기 들어 처음으로 등교수업에 돌입한다.

이번 등교는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달 3일 고1·중2·초3~4학년에 이은 마지막 4차 순차 등교다. 이로써 전국 학생 595만여 명이 모두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는 상황이 됐다.

마지막 4단계 등교 대상인 중1·초5~6학년은 고3보다 19일 더 늦어 애초 등교 예정일보다 99일 늦게 교문 안으로 발을 디딘다.

고3·중3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격주제나 격일제 등으로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학교에 나오는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를 중단·연기하는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으

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 5일 514곳으로 줄었다.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전국적으로 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6명, 교직원 4명으로 집계됐으며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학교 밖 감염으로,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었다.

광주·전남 역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순차적인 등교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3차 등교 이후 5일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등교수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밀집도에 따라 고3·중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년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할 상황이라는 '무늬만 등교'라는 지적 등 등교수업을 둘러

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까지도 등교수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또 초등학교 중에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하고 급식 전에 하교하는 곳도 많아, 일주일에 오전 2~3시간 가량만 등교수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직 사례는 없지만, 자칫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 같은 비판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순차적인 등교수업으로 일선 학교들이 면역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교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6일 오후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떨어지고 흠집난 매실. <전남도 제공>

동전만한 우박이... 10분만에 농작물 쑥대밭 매실·사과·배·고추·참깨 등 전남 동부권 53만평 피해

지난 6일 오후 5시께 곡성·보성·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

지역에 따라 2~10분간 동전 크기만 한 우박(지름 1cm 안팎)이 쏟아지면서 176ha(53만여평)에 걸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했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곡성 100ha, 보성 70ha, 순천 6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매실·사과·배·블루베리 등 과수작물 131ha, 토란·고추·참깨 등 밭작물 45ha, 10분 안팎 쏟아진 우박으로 축구장 240여개 면적의 농지에서 과수 낙과 및 흠집, 밭작물 잎 손상, 도복 등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오는 16일까지 시·군을 통해 피해 신고를 받고 농가별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봄 냉해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 또다시 우박 피해가 일어났다"며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손해평가가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봄 전남에서는 냉해·우박 피해 등 농작물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수정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 배 등 과수작물 꽃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냉해 초기 조사에서는 피해면적인 1915ha에 달했고, 이후 공무원·이장·동장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6322ha 늘어난 8237ha(약 2500만평)로 늘었다. 냉해 피해 농가는 1만1639곳으로 파악됐다.

/김형호 기자 khh@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지난 6일 광주시 남구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47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상이군경 이덕모씨, 중상이자 부인 이숙희씨, 전사자 부인 임복례씨(대리수상), 전물군경 유족 이준배씨, 특별부문 허기남씨.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역 노후 지구대 리모델링...첨단·동운·대촌 3곳

광주지역의 노후된 경찰서 지구대가 새롭게 바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 남부경찰서 대촌파출소 등 3곳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동운지구대는 증축도 추진한다.

공사 기간은 이달부터 9월 초 또는 10월 말까지로, 해당 지구대는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112신고 출동 등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첨단지구대는 광산구 메가박스 첨단점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동운지구대는 북구 복문대로98번길 5 건물 1층에서 임시로 치안 업무를 본다.

대촌파출소는 남구 지식동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종합상황실 1층에 임시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대, 광주·전남 유일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

광주대학교 간호학과가 보건복지부 '2020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다.

광주대는 교육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2억 6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시뮬레이션 실습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간호실무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

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 현장 적응력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광주대 장미영 간호학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시뮬레이션을 기반한 실습 교육으로 접목할 수 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간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기간제교원 고용불안 없앨 것"

행정적·제도적 손질 공언

교육계의 문제로 지적돼온 기간제교원 자동해고와 일부 정규직 교원의 '암체 복직'에 대해 광주교육청이 행정적, 제도적 손질을 공언해 주목된다.

7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계약제교원에 대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한 해고시 우선채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 고용불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만 놓고 보면 기간제교원의 고용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이나 승진, 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자동해고 조항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절차나 구제 절차도 미흡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

지'라는 교육부 지침이 2008년 이미 폐지됐음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중에 육아휴직 중이던 정규교원이 방학이나 명절을 코앞에 두고 슬그머니 복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교원이 계약만료 전에 해지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기간제교원들은 정규교원 복직·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우대(우선) 채용하는 등 현실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시 교육청이 "적극 검토"로 화답했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 교원의 암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납골당	37%
수목장	44.2%
산소	4%
기타	14.8%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납골당	74%
수목장	1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